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교회설립 10주년 맞이하다

### -성찬식, 설립10주년 감사예배, 장로 임직식 등 풍성한 행사 가져-

드디어 우리 서울교회 년수가 10년을 맞이했다.

10년 전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교회의 설립과 이종운 목사와 성도 개인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란 말씀을 응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새 예배당에서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

이 뜻깊은 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풍성한 행사를 갖는다. 먼저 주일

예배 시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갖고, 이어 저녁 찬양예배는 추수감사 예배와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된다.

특히 찬양예배 시에는 7대 장로로 피택 받은 5명의 후보들이 6개월간의 수련 및 교육기간을 거쳐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임직을 받게 된다.

이 기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그대 일을 기억하여 앞으로도 항상 겸손하게 주위를 돌아보아 돕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 2002년도 서리집사 임명식 및 교구일꾼 임명식 갖는다

교회는 내년도 교회 살림의 중추로 봉사하게 될 서리집사와 각 교구에서 교구와 다락방을 책임질 교구일꾼을 임명하는 임명식을 다음 주일 예배시간에 갖는다.

교구일꾼은 교구간사와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권찰로 각 교구별 형편에 따라 조

정이 되었다.

서리집사와 교구일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 잘 감당하여 귀한 열매를 맺도록 준비한다.

### 사명자 대회 승전 감사예배와 새가족 환영회 다음주일에 갖는다

11월24일로 모든 일정을 마친 사명자 대회의 승전 감사예배와 새가족 환영회를 이번 달에는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주일과 장로 임직식 등의 행사로 인해 1주일 늦춰 다음 주일 예배시간에 갖게 된다.

사명자 대회 50일간의 지나간 기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승전을 할 수 있었다. 맡겨진 사명을 위해 50일간 철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킨 성도를 비롯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와 오렝과 따뜻한 차를 준비하여 대접하며 전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 그리고 새벽기도 제단에 참여하여 기도로 새벽을 깨운 성도들, 가정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한 성도들 모두가 승리자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제 다음 주일 승전을 감사하는 예배를 찬양예배시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것이다.

또한 11월중에 등록된 모든 성도를 환영하는 환영회를 이날 함께 가져 새로 등록된 성도들을 환영하게 된다.

## 12월1일(토) 23사단 진중세례식

비전2020 운동본부는 12월1일(토) 육군 23사단에서 거행되는 진중세례식에 참석하여 세례 받는 장병들을 축복하고 민족의 75%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된다.

이 날 비전2020 운동본부는 준비하여간 위문품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추운 날씨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을 위로하는 행사도 갖게 된다.

관심있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요청된다.

### 지난주 우리교회는

- ① 김장700포기를 담그는 봉사자들
- ② 추수감사 및 교회설립 10주년 감사 찬양예배 -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 새로부임하는 교역자 두분

교역자 두 분의 청빙이 당회에서 확정되었다. 당회는 김운호 목사와 윤영국 목사 등 부목사 두 분을 청빙하였다. 두 분 부목사는 오는 12월 셋째주에 이사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새로 오는 교역자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 ▶ 김운호 목사

1960년 생으로 박수정 사모와의 사이에 2녀가 있다. 고려대와 동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장로회 신학대학(M.Div)과 대학원을 졸업했다.(Th.M)

1996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대구 삼일교회에서 시무했다.

#### ▶ 윤영국 목사

1969년 생으로 김영미 사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계명대 심리학과의 장로회 신학대학(M.Div)을 졸업했다. 2000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금성교회에서 시무했다.



김운호 목사



윤영국 목사

### 제1권사회 명칭변경

당회는 시무 권사회와 차별을 두어 권사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제1권사회(은퇴 권사회)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1권사회로 불리우던 것을 '살롱 권사회'로 칭하기로 한다.

# 국내외 교계인사 6인의 축하메세지



## 한국 장로교회의 표준이 되시길

이중성 목사  
(한국 기독교 학술원 원장)

이중성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몇 마디 언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59년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취임했을 때 이 목사님은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려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이 목사님의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결과 그가 매우 신실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번역할 때 초역을 부탁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귀국하여 활동하고 있을 때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초빙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때 사정이 있어 함께 일할 수 없었으나 그 후에 우리 교단으로 이적하여 현재 같은 교단에서 주의 일에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교회를 논현동에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뻐했습니다. 서울에는 장로교회가 많이 있으나 표준적이고 마음에 드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물론 칼빈이 좋아하는 교회가 생기리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세운 장로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신학적으로 복음적이면서도 개방적이며, 일상 생활에 있어서는 성서적이고, 사회생활은 매우 진취적이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화적입니다. 교회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적이며 인생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대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러한 장로교회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원칙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양육하여 현재와 같이 크게 성장한 줄로 믿고 축하합니다. 바라건대 서울교회가 외형적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표준이 되어 다시는 이 땅에 타락된 장로교회가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김우식 장로 (연세대학교 총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창립된 서울교회가 금년 11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창립 이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서울교회 신앙공동체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로 접어든 오늘의 상황은 기독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임무와 사명을 의식하게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 사회"로의 전환은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성서 지식과 해석을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다원화 사회"로의 전환도 기독교회로

하여금 과연 어떠한 삶의 형태가 가장 기독교적인지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세대 문화의 출현은 오늘의 한국교회로 하여금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교회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 앞에서, 창립 이후 지금까지 한 알의 밀알로 봉사해온 서울교회는 앞으로도 교회 안팎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신앙공동체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고귀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교회 설립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곽선희 목사 (소망교회 담임)



창립 10주년을 맞는 서울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이신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친히 주관하시며 친히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에 그의 신비롭고 놀라운 사역을 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불러 쓰시는 교역자와 함께 그 존재의 의미와 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근원의 경륜 속에 이중운 목사님을 예비하시고 그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며 살아 계신 말씀과 또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서울교회와 함께 크게 나타나며, 짧은 10년간에 오늘의 "메가교회"로 부흥 발전케 됨을 보면서 그의 역사의 신비성과 위대하심을 다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참 교회의 교회상을 잃어 가는 듯 거룩한 교회상이 퇴색하고 속화일로에 있음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그 교회상에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성서적 신학적 살아있는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 지도적 교회로 발전하면서 서울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표와 견인차적 위상을 지닌 교회로 계속 큰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계교회의 모델 제시를

조중남 목사  
(아시아로잔 위원회 의장)



서울교회가 창립10주년을 맞이함에 있어 중심으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경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 하리라"(욥 8:7)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서울교회는 창대하게 부흥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담임목사이신 이중운 목사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온 성도들의 헌신적 충성을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교우 모두가 하나님

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교회가 지난 10년간 여러 면에서 놀랍게 성장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온 세계의 교회와 사회가 서울교회를 주목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여 온 귀한 사역들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적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사역에서 그 성령의 원동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또한 교회가 시작하면서 밖으로의 선교 곧 학원 선교, 군 선교, 사회복지사역 그리고 해외선교를 활발히 하여 왔을 뿐 아니라,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신학세미나, 김치(KIMCHI) 신학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므로 세계교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전도를 통해 성장해온 교회로서, 세계교회에 하나의 모범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교회에 더욱 무한한 기대를 품으며, 이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Dr. Samuel T. Logan, Jr.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I have just returned home after an extended trip and am happy to provide a congratulatory message. It is below.

On behalf of the Faculty, the Board of trustees, and the students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A), I am delighted to offer to Dr. Jong-Yun Lee and to Seoul Presbyterian Church our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your tenth anniversary.

I had the great honor of visiting Seoul Presbyterian Church both in your original facilities and, this past February, in your new building. It is remarkable what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through you! You have extraordinary resources with which to extend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in Christ until that knowledge covers the earth as the waters cover the sea (Habakkuk 2:14). We will continue to pray for you in that task.

Dr. Jong-Yun Lee was my host on my very first trip to Korea almost fifteen years ago. I have treasured his friendship and admired his gifts since that first meeting. We at Westminster are thrilled to see the many ways in which the Lord has used this outstanding Christian servant and leader (and Westminster alumnus!).

Many in your congregation and especially among your elders have been most encouraging to us at Westminster. We delight to see this tenth anniversary as a great encouragement to you. We rejoice with you on this special occasion.

Sincerely in His grace,

Samuel T. Logan, Jr.  
Presiden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A)

서울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회와 이사회, 그리고 전체 학생들을 대표하여 이종운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서울교회 초기에 여러분의 예배당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올해 2월에는 새 예배당을 방문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서울교회에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하박국 2:14)' 뛰어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약 15년 전에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종운 목사님께서 저의 호스트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첫 만남 이후로부터 저는 이 목사님과의 우정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목사님의 은사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뛰어난 종이 며 리더인, 그리고 우리 학교 동문인 이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특히 많은 장로님들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저희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뜻 깊은 서울교회 10주년 기념일이 여러분들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함께 그 감격을 나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원합니다.

## 서울교회를 천국의 작은 체험장으로

**Dr. Ken Gnanakan**  
(인도 KIMCHI 동문, 아세아 신학연맹 회장)

*God has blessed Seoul Presbyterian Church with Ten Years of His goodness.*

*What a significant land mark this is and it is to the encouragement of the Pastor, his team as well as all the congregation members. Each one has a part in making the church what it is.*

*I have had the privilege of being with Dr Lee almost from the start of this church. I remember the building you started with, I remember meeting with the elders and deacons, I remember coming to the dawn prayer meetings. Every time there was an assurance that God would greatly bless and build up this church into a strong and beautiful witness for himself. Do not despise the small things, God's word says, and out of those small things have come a big blessing today.*

*Dr Jong Yun Lee exercises a gifted leadership. Under his leadership all the other gifts of God's people have been developed. While God builds his church, he blesses and uses his people through whom his work is accomplished. You have all been used by God as his instruments. Dr Lee's faith in God is obvious. It is a strong faith and therefore he moves ahead confidently. When the leader moves ahead in confidence, the whole church follows in faith.*

*I have seen your new church and remember Dr Lee taking me around when I visited him. It is a magnificent building with good facilities for worship,*

*education and fellowship. God has provided the resources to raise up this structure. Beautiful buildings help us to remember that we are to be in the most beautiful place when we get to heaven and rejoice in God's presence. We will have perfect fellowship with God and his people and rejoice evermore.*

*Till then, make your church a little experience of heaven. May God richly bless your pastor, the elders and the deacons, and each one of you in the congregation.*

Ken Gnanakan

하나님께서 십 년 동안 그의 자비하심으로 서울교회에 큰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이정표이자 이 목사님과 그의 사역을 돕는 팀과 서울교회 전체 성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크신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서울교회가 있기까지 다같이 애쓴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교회 초기부터 이종운 목사님과 교분을 나누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교회를 시작한 예배당을 기억하고 있으며 함께 동역하시던 장로님, 집사님들과의 만남을 간직하고 있고 특히 뜨거웠던 새벽기도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셔서 서울교회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오늘날 그것들을 큰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셨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은사들이 그의 지도력 아래 잘 개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세울 때 사역이 성취되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의 도구로 사용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에 모든 것을 믿고 온전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리더가 믿음 속에 전진할 때 온 교회는 믿음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교회를 올해 방문했을 때 목사님께서 새 예배당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친교에 더없이 좋은 시설을 갖춘 훌륭한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즐거워하는 가장 멋진 곳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더없이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여러분의 교회를 천국의 작은 체험장으로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신동기 편사

사람  
시간  
전쟁 그리고  
또 다른 죽음으로  
날마다  
천지가 창조되는  
장엄한 부르심이어!

제길로 가는  
구름도  
바람도  
별들도  
밤새 이름 불러  
흐으시고

새벽의 붉은 맥박  
기막힌 침묵은  
그 피로  
삭혀져  
이 땅에  
생명으로 임하였는가?

허기진 영혼  
숨이 멎는 사랑으로  
십 년을 하루같이  
무릎으로 달려온  
"서울"의  
가난한 이들이여  
복되도다  
복되도다

일어나  
종과 횡으로  
우주를 바라보라

땅 끝에서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민족이 돌아오는  
축복의 아침  
이천일년  
십일월 이십오일!

그 피로  
날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주이 이름이 거룩히

아 멘!  
아 멘!

반포동 시대를 마감하고

# 서울교회 10년 . . .

Celebrating 10 Years

1991년 11월 24일 교회 창립이후 20



1991년 10월8일 미국에서 귀국하신 이종운 목사님



눈물의 50일 기도가 끝난 후 1991년 11월24일 서울교회 현관을 달다.

제 3세계 52개국의 500여명이 초청되었던 김치신학세미나



대중 시대를 맞이하기 까지

# 그 역정과 새로운 시작

of Faithful Journey

2001년 11월 25일 현재까지를 되돌아본다.



믿음과 수교와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 대치동 예배당 입당 - 온 교회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미지립 농촌100교회 돕기운동 - 해마다 여름이면 이들교회에 놓여준 봉사대가 귀송을 나간다.



백성의 75%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비전2020운동, 조국수호의 기수들인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혹서의 92년 여름 전교인은 동해로 떠났다.



# 교회10주년 기획 특집 당회장에게 듣는다



## ■ 이종운 목사의 삶의 여정, 그리고 목회자가 된 동기는

부족한 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때 저는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전도를 했고 그 친구가 꼭 교회를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교회도 나와보지도 못한 채 무슨 이유에선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친구의 유골을 강에 뿌리고 그 길로 성경책을 들고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흑시 목사가 되기로 한 마음이 변할까봐 노트마다 '목사 이종운'이라는 타이틀을 적어놓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또 기왕 목사가 되려면 공부할 게 많아 되겠다는 생각에 그 밑에 '박사 이종운'이라는 타이틀도 함께 적어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별명은 '이 목사', 대학교 때 별명은 '이 박사'였습니다.

저는 항상 학문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50세까지는 신학을 연구하며 학생을 가르치고 최종적으로는 목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인생이 성숙한 후에 설교를 해야겠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목회는 50이 조금 안된 나이에 시작했습니다.

## ■ 이 목사의 가족 사랑은

사랑하는 홍순복 사모와는 교회에서 만나 67년도에 결혼했고 자녀들은 미리, 미영, 미경 세 딸을 두었는데 딸들은 모두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항상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는 이 목사의 감회

1991년 초가을, 당시 시무하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부족한 중은 잠시 미국에 머무르며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변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모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청빙을 받았지만 목회자로서 여생을 마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울고 있는 나의 양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 곳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지금 대치동 성전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서울교회와 저에게 차고 넘치는 큰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가브리엘 찬양대가 교회설립 10주년 감사찬양을 했는데 그 때 참으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10년 전 몇 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교회를 세워놓고 저

를 위임목사로 청빙 했을 당시 서울 교회는 의자도 없이 마루바닥에서 예배를 드렸고 찬양대 역시 마루바닥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웅장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저들이 부족한 저만을 믿고 수년, 혹은 수십 년 씩 섬기던 교회를 뒤로하고 서울교회로 온 생각을 하며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주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니 새삼 그때가 떠오르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서울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 ■ 이종운 목사의 목회 철학은

저는 약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의 목회 철학을 3P와 ABC라고 정리합니다. 교회란 계속적인 성장을 해야지 한 번 변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P란 Preaching, Prayer, Program을 말하고 ABC는 3P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Ardent prayer(열렬한 기도), Biblical preaching(성경적 설교), Consistent program(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목회에 있어서 열심 있는 기도와 성경적 설교의 중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교회성장에는 반드시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교회에 프로그램에는 교회 내적으로 성경대학이나 주부대학, 경로 대학 등이 있고 또한 10년째 계속 되는 목회자세미나 김치(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세미나, 5년째 계속하고 있는 농어촌 100교회 돕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 갱신과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큰 사역이지만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며 목회자 세미나는 92년부터 시작하여 9년 동안 18학기를 김치 세미나 역시 9년 동안 52개국의 제 3 세계 지도자들을 한국 목회의 현장에 초청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김치 세미나는 로잔위원회의 세계선교전략의 하나로 채택된바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와 김치 세미나는 모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나라의 어느 교회든 지도자가 변화되지 않고는 교회가 갱신될 수 없고 교회가 갱신된다면 강단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가르치는 일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 ■ 이종운 목사의 명쾌한 설교의 근원은

저는 신약학을 전공했고 학위논문의 제목 역시 '바울

에게 있어서 역사적 예수'입니다. 제가 늘 하는 것이 성경 연구이고 성경은 나의 삶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설교의 근원을 따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모두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평신도라 할지라도 성경신학의 기초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며 말씀의 바른 이해야말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 한국 교회가 가야할 길에 대한 방향 제시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 천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고 반면 바울은 설교를 하다가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베드로가 성공한 목회자고 바울은 실패한 목회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가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핵심은 결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열린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찬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모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이러한 일시적이고 수에 의존하는 성장을 지향하면 안될 것입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양들에게 기름진 꼴을 먹이는 것이고 양들로 하여금 그 꼴을 먹고 바르게 성장하여 말씀 위에 믿음이 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성장한 성도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나가 나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체제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누구나 베드로나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촌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그들대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큰 교회에서만 하려고 하니가 작은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낍니다만 백화점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장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목회자의 진정한 성공은 성취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개교회는 받은 바 사명을 잘 이루면서 형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신임장로에게 부탁한다.....

이우선 장로

### 하나님의 목회에 초점을 맞추어 행진하기를

하나님 제일주의의 목회 곧 하나님의 목회를 지향하시는 당회장 이종운 목사님과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새 예배당에서 교회설립 제10주년을 맞이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감격과 기쁨을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 더욱 감사한 것은 신실한 다섯 분을 장로로 장립하게 되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심은 서울교회에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은퇴한 저는 서울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자랑합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 365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쉼 없이 헌신하시는 당회장 이종운 목사님과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신행일치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신 연로하신

권사님들 그 뒤를 받들어 크고 작은 교회의 모든 행사에 솔선하여 충성한 온 성도들의 뜨거운 예수님 사랑이야말로 서울교회가 이름 그대로 한국의 수도 서울교회가 되게 한 위대한 원동력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토양이 있기에 당회는 존재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며 분별력과 지도력을 겸비하고 교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당회원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매 주일 새벽에 경건회로 모여 기도하며 교회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당회에서는 토론은 하되 자기의견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혼연일체가 되어 선 후배의 조화를 이루며 성도들 앞에서 힘차게 매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닌 성 당회(聖堂會)로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회장 이종운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존경하며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울교회 울타리 속에만 안주하게 하지 않으시고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를 향도하라는 사명도 주셨기에 당회는 한국교회가 이루지 못한 '목사 장로 안식년제'를 의결하여 금년 제1대 장로부터 성공적으로 시행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며 자기를 관제물로 드리는 당회원들의 충성이었습니다.

다섯 분께서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닌 서울교회 당회원이 되셨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두 무릎부터 꿇으십시오. 그리고 디오드레베(요3서 1:9~10)의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부디 가이오(요3서 1:1~4)같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신임장로와 돕는 배필에게 듣는다.....



홍성주 집사

뜻 깊은 서울교회 설립 10주년과 200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장로 임직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을 두루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교회가 걸어온 길은 온통 기적의 연속이요 인

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였습니다.

저를 서울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직장에서 학원 선교를 강권으로 맡기셨고 스테반회에서 협력하여 섬기며 일하다 보니 교회의 성장과 함께 믿음도 자라고 건강도 좋아져 이제는 간증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임직을 받으며 주의 말씀 따라 할 수만 있는 데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6개월간의 교육기간 중 우리를 위해 기도와 말씀, 권면으로 애쓰신 목사님 이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맡기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여현진 권사

지나간 순례자를 다시 펼쳐봅니다. 10년 전 길을 따라 방향 할 때 우리를 불러모아 서울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 그때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벅차 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저와 저의 가정의 역사도 되돌아보면 주의 은혜로 살아온 하루 하루였습니다. 홍성주 집사와 결혼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4대를 이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홍 집사의 임직을 앞두고 받을 자격 없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신 살아있는 사랑을 기뻐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자녀답게 살아가고 기쁘게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언행으로 다음어지길 소원합니다.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삶 속에서 겸손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복규 집사

이제 교회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동안 기도와 격려로 그리고 사랑으로 아껴주신 성도님들! 감사 감사 드립니다. 오랫동안 집사로 든든 이름이 6개월간의 교육과 장로고시를 마치고 선배장로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제 장로로 불리 운다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어색하고 쑥스럽고 실감이 나지 않네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길가의 밭, 가시밭, 돌짜 밭이 옥토의 밭으로 개간되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워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몸 된 아름다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도록 다짐해 봅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많은 지체가 제자리위치에 가있듯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순종하므로 믿는 자에게 덕을 세우며 불신자에게 복음의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나겠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목사님의 한 팔이 되고, 성도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 나눔과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일에 힘쓰도록 결심해봅니다.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도가 되어 서울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이바지하는 장로 부부가 되기를 고백하며 어설론 이 장로를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기도의 후원을 요청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에 .....

### 한명순 집사

도심의 거리에 낙엽이 우수수지는 늦가을 감사의 절기에 나는 구원의 자녀로서 다시금 행복자임을 알고 느

끼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만삭되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주신 크신 섭리를 생각할 때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 설레임과 송구스러움도 다가옵니다.

이일을 현실로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더 현숙하며, 정숙하고 자혜로운 아내가 되도록 늘 힘쓰므로 성직인 장로의 직무를 장로님답게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써 내조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지는 것처럼 평생 성숙한 장로로 훈련되어 지도록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함께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님께서 몸 되신 교회 위에 분부하신 모든 일과 성도간의 화평과 담임목사님의 사역을 겸손히 도우며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약하나 강한 그리스도의 사명자요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죽는 그날까지 주신 소명 다 이루게 하소서." 아멘

이관규 집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후환이 두려워 광야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족장이 되게 하신 것은 야곱의 노력도 계능도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의 결과인 것처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세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기에 이 감사의 마음 말로 형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늘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서울교회에는 충성스럽고 진실한 일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성도들 중에 가장 미천하고 허물 많은 저를 이 막중한 자리에 세우시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기와 명예가 아닌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부기와 영광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겸손의 은사를 허락하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순영 집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인약하고 부족한 저희 가정에 강로 임직이라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중의 직분을 겸손과 진심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돕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늘 충성으로 봉사하며 기도하고 성도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닌 몸으로 실천하여 사랑과 봉사와 감사의 열매를 달아내는 종과 그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세재 집사



중학교 3학년이 되던 봄날, 어머니의 암으로 인한 사형선고는 소년의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먼 사돈 별되는 별인연도 없던 한 분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어머니가 살수도 있다는 유언 비어(?)에 속아 소년은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고 중생을 체험하며 어머니의 쾌유를 기대했지만 어머니는 주님을 영접하신 후 가족들에게 예수 믿기를 권하시던 다음 날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소년의 벗이 되어 주셨고 청년시절을 통해 하나님의 친절히 그리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메를 깨닫게 하셨으

며 같은 교회를 섬겼던 한 자매를 그의 쪽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중년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는 장로가 됩니다.

노회 면접에서 '장로가 되면 집중광구는 교만해진다'는 한 목사님의 말씀에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 겸손해지기를 날마다 힘쓰라는 충고를 무겁게 안고 집으로 돌아오며 이전보다 더 낮아지는 연습을 부지런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장로되기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될 터이므로 남은 삶의 전부를 '온전한 장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마쳐 나가겠습니다. 육신의 재미와 걸모양을 위해 탕진한 긴 시간들을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해져는 경건의 훈련에 정진하여 기쁨부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늘 즐거워하는 삶을 성도들과 함께 만끽하도록 힘써 경주하겠습니다. 기도도 미련한 행보를 도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운진 권사(4교구)

남편이 장로가 되어서 장로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아내로서 피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육에 진지하게 임했고 집에서 복음을 하였고, 선배 장로님으로부터 큰 격려로 교회에 대한 충성을 부탁 받을 때는 가슴으로 울며 아무 흠이 없는 진정한 장로의 아내로 설 것을 다짐하였지만 나의 못난 모습은 여전히 흠집 투성이임을 고백합니다. 중학교 입시에서 예기치 않은 실수로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진학하여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도록 허락을 받아 집안에서 신앙의 호주가 되었지만 한 알의 밀알은 아직도 썩지 못하고 성근 열매로 초라하기 짝이 없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남편이 장로가 되면서 이 몸을 저는 장로의 아내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교회를 최우선으로 섬기며 순종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늘 가슴에 묻고 생활하겠습니다.

임상헌 집사



피택 이후 지난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임직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서울교회 온 성도들을 겸손으로 받들고, 지극히 온유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

게 앞으로도 쉬지 않고 이 기도 계속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라도 저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개으름을 볼 때마다 질책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다짐을 드립니다.

서희숙 집사

지극히 작은 자 중에도 작은 자인 남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지난 6개월간의 교육을 통하여 더욱 낮아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6개월간의 교육에도 참여하였고 이제 저희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봅니다.

오늘 남편의 임직을 저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남편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들이 하나도 이곳남이 없이 서울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지기를 묵묵히 기도합니다.

선물로 주신 새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주께서 이루어주시는 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이끌어 남편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는 여종이 되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이오시는 그 날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24일(토) 서울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체육대회 개최설교를 했다. 26일(월) 송실대 체육장에서 설교한다. 27일(화) 한국로잔위원회 임원회 29일(목) 한국장로교회 정책성위원회·강남노회 각 부부 및 임원회 연석회의를 각각 소집한다. 30일(금)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29일~30일에는 노회 임원 수련회를 인도한다.
- 예안석 집사, 송금자 집사 가정(11교구) 고무장갑 100개 기증

◉ 김장 봉사자 간식 제공 : 심계을권사, 최난수권사 오경수 장로 이관규 집사 가정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생서경애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Y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설립10주년을 감사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2. 새로 임명될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인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